

개화기 문턱에 선 과학저널리즘

악조건 속 불모지 개척하는 과학지

朴澤奎

건국대교수 · 화학

'과학不毛'의 풍토

한 나라의 과학수준은 과학도서·과학잡지의 발행량과 비례한다고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출판 자체가 빈곤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 하지만, 국민의 문자해독률이 98%나 되면서도 정작 국민 독서율은 형편없이 낮은 실정에서 그나마 과학서적이 끼어들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최근 선진국에서조차도 이른바 '과학文盲' 문제가 새로운 위기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도의 문자해독률과 과학문맹률이 정말 반비례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거나 앓는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점점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과학의 대중화운동은 기실 그 역사가 오래다. 이미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걸쳐 선구적인 과학자들이 국민계몽운동,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과학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바 있는데, 그무렵 종합과학잡지로서 「科學朝鮮」이 창간(1933)되어 비교적 장수를 누렸다. 해방 후에 몇몇 종류의 과학잡지가 창간되었으나 모두 단명으로 그치고 말았다.

1964년에 창간된 종합과학지 「科學世紀」(발행인 南宮 浩)도 1년만에 「학생과학」으로 탈바꿈할 수 밖에 없었고, 60년대 초에 등장한 「科學新聞」과 「科學과 生活」(발행인 孫永壽)도 과학잡지에 대한 애정과 집념을 오래 지속시킬 수 없는 사회환경을 입증해주는 기록만을 남겼을 뿐이다.

70년대 들어 과학기술정책이 강력히 추진되면서 과학의 대중화는 유행어처럼 되었으

나, 역시 종합과학지 하나 없는 불모상태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독자 확보에 안간힘 쓰는 종합과학지

그런 가운데에도 몇몇 과학지가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꾸준히 고군분투하고 있다. 월간 「科學教育」(나성균), 「電子科學」(이준석), 「학생과학」(한국일 보사), 「과학과 기술」, 주간 「科學新聞」(김진호) 등 기존의 과학지 외에 특히 80년대 들어 「사이언스」(이성구), 「월간과학」(계몽사), 월간 과학세계(이영주), 「과학동아」(동아일보사) 등 월간지들이 잇달아 창간되어 과학저널리즘이 모처럼 개화기를 맞고 있는 느낌이다.

과학지로서는 가장 연륜이 오랜 「학생과학」(1965 창간)은 국민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과학교양지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만화를 곁들여 잡지를 꾸미고 있고, 「과학동아」(1983)는 양질의 종이로 다양한 천연색화보가 돋보인다. 이들 2개의 과학지는 일간신문의 자매지라는 잇점을 충분히 살림으로써 과학독자층의 확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과학한국의 밝은 미래를 여는 월간 종합과학지」임을 자부하는 「사이언스」(1982)는 풍부한 해외자료의 소개와 원색화보 등이 독자와 전문과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잡지는 특히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하는 마음가짐, 어떤 문제에 대한 발상과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법 등에 편집의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과학교육의 근대화를 표방하는 월간 「科學教育」(1964)는 대학교수·교육전문가·장학



사·초중고교 교장 등을 편집위원으로 위촉, 교사들을 위한 과학교양지로서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수하고 있다. 다양한 특집을 통해서 과학교육의 실상을 파헤치고 개선책을 모색함으로써 많은 일선교사들에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과학일반의 새로운 정보를 소개하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라 하겠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발행하는 월간 「과학과 기술」(1969)은 편집위원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과학기술정보와 과학기술계의 뉴스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특수지로서의 성격 때문에 회원단체의 동정이나 행사계획 등 홍보물의 인상을 주기도 한다.

과학필자 발굴, 전문편집인 양성이 과제

81년에 창간된 「週刊科學」을 작년에 개제한 「科學新聞」은 과학기술계의 유일한 대변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면서 계속 부수를 확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간지로 발전시킬 야심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호가 가리키듯 신문으로서의 비판기능에 아쉬움은 있지만, 외딴 지방분교의 교사

나 산간벽지 중학교 교사의 현장교육자료를 실는 것 등은 매우 돋보인다. 특히 과학관계 신간소개나 서평에 지면을 대폭 할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잡지란 많은 사람에게 읽히는 재미, 곧 팔리는 재미도 결들여야 하는데, 저작권법 시행으로 인한 과중한 재정적 압박과 판매부수의 확장부진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시달리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런 어려움을 부분적으로나마 해소시켜 주기 위해 정부가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을 통해 작년부터 일정 부수를 구입 배포하는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런 지원마저 없었다면 과학잡지가 겪는 운영상의 고통은 더 심해되었을 것이다.

채산성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보다 재미있고 널리 읽히는 과학잡지를 만드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필자를 발굴하는 일, 전문번역인과 전문편집인을 양성하는 일, 그리고 과학출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곁들여 과학만화의 소재개발이나 과학만화전문가 육성을 위한 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창간 1964년 9월 1일
25년의 튼튼한 뿌리



시대의 사명을 아는 잡지

과학기술에서 뒤진 민족은 결코 선진대열에 설 수 없다

月刊「科學教育」은 과학기술입국을 선도하고 과학교육 선진화를 지향합니다
月刊「科學教育」은 일선 교사 및 교육전문가, 각급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기관과 과학교육에 관심있는 이들에게 과학·수학·기술·시청각교육 분야의 교육철학 및 그 이론과 교수-학습 방법론, 실험지도 자료, 교사실무자료, 교육평가를 비롯하여 최신 과학이론 등 새로운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청각교육사

서울·서대문구 충정로 3가 95-1 TEL. 363-2051·2052·2098